

주가 -1.79 1,450.44 (코스피지수)	환율 +3.90 932.00원 (원/달러)	금리 +0.01 4.81% (3년만기 국고채)
------------------------------------	----------------------------------	------------------------------------

코스닥지수	686.12	(-5.77)
다우(8일)	11,584.54	(+6.80)
나스닥(8일)	2,344.99	(+2.42)
낮케이	17,190.91	(-100.76)
엔-달러 환율(도쿄 17:00 기준)	111.65엔	(-0.11)
유로 달러 환율	1.2696달러	(-0.29)
3년만기 회사채	5.07%	(보합)
물금리	3.95%	(-0.01)

## 중기청 공정혁신 지원사업 (주)무등 등 4개 회사 선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중소기업 공정 혁신지원사업을 위해 (주)무등 등 4개 회사를 선정, 2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의 명단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무등=필름제작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출력시스템 도입
- ▲봉황세라믹스(주)=점토제품 생산을 위한 바인더 회수 및 공급공정개선
- ▲행정테크(주)=UV(자외선)코팅 수동 스프레이 공정을 위한 세미 로봇화 개선
- ▲에프엔엔(주)=제품그늘 생산방식을 적용한 광패치코드 제조공정 개선 등.

공정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에 필요한 현장 진단, 설계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이내, 과제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청은 사업착수 전에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평가, 사업추진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고 기술혁신과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혁신형 기업으로의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기청 '합동종합 민원상담실' 운영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서남권(목포·영암·무안·신안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의 일환으로 목포시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등과 공동으로 11일 목포벤처지원센터(061-270-8820)에서 '합동종합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현장지원 활동으로 서남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판매에로, 기술지원 시책, 기술지도, 계측기교정, 제품의 시험·분석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매일 첫째주 목요일에 민원상담실을 운영, 서남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환위험 회피 금융상품 '블티'

### 외환시장 급변동 따라 ... '한테크' 예금·대출 인기

외환시장이 급변동하면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출시된 예금·대출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는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됐지만 고수익·고위험을 즐기는 프로그래머들은 해당 상품을 제테크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환위험회피형 대출상품인 '프리캐런시론'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500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 상품은 출시 직후에는 한달에 500억원 어치씩 판매됐지만 4월부터 1천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프리캐런시론은 환율변동 예측에 따라 유리한 통화를 개별 혹은 복수로 대출 받고 도중에 외화 및 원화대출간 전환도 자유로운 상품이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특히 외화대출을 받은 후 원화로 갚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

돼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기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지난해 말 10만달러를 대출받은 기업은 당시에는 1억12만원을 갖아야 했지만 현재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9천4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상환통화가 원화이기 때문에 원화 강제 현상이 심화되면 상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외국통화를 증도하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업은행의 '카멜레온 외화정기예금'도 최근 잔고가 크게 늘었다. 이 예금의 잔고는 지난해 12월말 418만4천420달러였지만 현재는 455만2천866달러로 10% 가까이 늘었다. 기업대상 외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가 등 4가지로 예금을 증도하지 않고 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가치가 급락한 달러 및 엔화 예금 잔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달러화 예금잔고는 지난해 12월말 9억9천400만달러에서 4월말 12억



시원한 종이가방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층 여성매장에서 종이로 만든 여름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다. 원색계열의 이 가방은 보기엔 왕골같지만 먼 종이로 만들어 시원스런 느낌을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은행 15일부터 새 폰뱅킹 서비스

광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폰뱅킹 전화번호인 1600-400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를 위해 최근 하나로빌레콤과 업무 제휴를 맺었으며 현재 제공 중인 1588-3388번과 함께 1600-4000번

을 추가함에 따라 한층 빠른 전화연결 서비스는 물론 도·감청 방지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의 비밀번호 및 정보유출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새로운 폰뱅킹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3개월 동안 폰뱅킹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층 추천을 통해 LCD TV와 김치냉장고 등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社 告**

### '효율적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

11일 오후 2시 광주·전남중기청 대회의실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방청 2층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최근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위해 원가 절감, 환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또 1대 1 현장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환리스크 인식을 높이고, 환율변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광주권에 이어 동남권(7월 13일·광양시청)·서남권(10월 19일·목포시청)에서도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수출중소업체 관계자 등 많은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5월 11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의실
- 강 사 : 오세돈(외환전문술무원그룹 FMP 대표) 이수현(수출보험공사 대리)
- 내 용 :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 및 지원제도
- 문 의 : 광주일보사 경제부(2200-64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360-9190)

光州日報社 광주·전남중소기업청

###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에 전도영 변호사

#### 광주지법 선임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직무대행에 광주지법원장 출신인 전도영(67) 변호사가 선임됐다.

광주지방법원 제9인사부는 9일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에 전 변호사를

재판부는 "상공인이 아닌 자가 직무대행자로 지정될 경우 상의회장 본인의 직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천인을 놓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무대행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 법조인을 직무대행자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장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의 부회장과 3명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이를 일임하기로 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상의 신뢰 회복에 최선"

### 전도영 직무대행 "상공인 의견수렴 현안 해결"

"광주상의가 상공인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 책임있는 경제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직무대행에 9일 선임된 전도영(67) 변호사는 "상의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상공인이 아닌 법조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부답스럽다"면서도 "법원이 나를 선정한 것은 상공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의 현안과 관련, 전 변호사는 "이번에 큰 논란을 빚은 선거구정을 개정하고, 끊이지 않는 상공인간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경륜이 많고 존



경변는 상공인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선거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된 상공인들의 통합방안 모색에 전력을 기울일 각오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전북 완주출신으로 전북대, 사시 8회,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장원'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공인평가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

제1회 공인평가사 전국 수석 합격자 100명 배출  
제2회 공인평가사 전국 수석 합격자 80명 배출  
제3회 공인평가사 전국 수석 합격자 70명 배출  
제4회 공인평가사 전국 수석 합격자 60명 배출

**전국 1위 합격률**

매월 초 **쌍용 행정고시학원** (361-8111)

##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양도/양수

청원 C&S (주) 062-512-0347

## 전립선 J2V

비뇨기 전문 병원

비뇨기 전문 병원

대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

##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벽개발 TEL 062) 362-8806